



5일 오후 도쿄돔에서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아시아에선 개막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입·추 “4강 우리가 책임진다”

(창용) (신수)

부상 악몽 털고 마무리·지명타자 투타 활약 기대



이제 '부상 악몽'은 끝났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아시아예선전을 코앞에 두고 입은 부상으로 코타란 근심을 안겼던 추신수(클리블랜드)와 임창용(아쿠르트) 두 해외파 선수가 우여곡절 끝에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되면서 대표팀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게 됐다.

WBC 부상방지위원회는 5일(한국시간) 사흘 전 왼쪽 팔꿈치 부위를 다친 추신수에 대해 아시아예선 기간 지명타자에 한해 출장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일 세이브 라이온스와 평가전 직전 타격 연습 도중 왼쪽 팔꿈치 부위 통증을 호소, 소속 구단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미국 소환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아시아예선전 출전이 불투명했던 추신수는 '추추 트레인'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한국인 타자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받으며 타격 실력을 인정받은 추신수는 제1회 WBC 대회에서 맹활약한 이승엽(요미우리)과 강타자 김동주(두산)가 빠진 대표팀 타선에서 김태균(한화), 이대호(롯데)와 함께 중심타선을 이루는 핵심 선수인 만큼 이번 결정으로 대표팀 타선의 무게가 한층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투수 부문에서는 임창용이 부상에서 깨끗이 벗어난 모습으로 대표팀에 안도감을 주고 있다.

임창용은 대표팀 합류를 앞둔 지난달 28일 소속팀 연습경기 도중 상대 타자가 친 공에 오른쪽 팔꿈치를 맞아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아시아예선전 출장에 의문

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임창용은 3일 도쿄돔에서 열린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대표팀간 평가전에서 팀의 세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안타와 보내기 번트로 맞은 1사 2루의 위기에서도 특유의 배짱을 앞세워 두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잡아내며 대표팀 마무리로서 활약을 준비가 돼 있음을 알렸다.

특히 이날 뿌린 공의 최고속도가 시속 146km에 달했고 네 타자를 맞아 던진 투구 수가 10개에 불과했을 정도로 제구력도 좋았다는 점은 대표팀 코치진을 더욱 고무시켰다. 대표팀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추신수와 임창용이 부상 악몽을 훌훌 털어버리고 대표팀 투·타를 이끌게 됨에 따라 한국팀은 첫 WBC 대회 4강 신화 재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더욱 빠르게 달려갈 수 있을 전망이다.

유인촌 장관 격려 방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한 야구대표팀을 격려한다.

유 장관은 이날 대만과 WBC 예선 첫 경기에 앞서 오전 11시40분 대표팀 숙소인 일본 도쿄의 도쿄돔호텔을 방문, 선전을 당부한다.

한편 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와 삼성, KIA를 제외한 6개 프로야구 구단 사장단도 이날 도쿄로 떠나 9일까지 대회를 관전하고 10일 돌아온다. 지난달 26일 제17대 KBO 총재에 취임한 유 총재는 이번 방문 때 대표팀에 격려금을 전달한다.



5일 오후 도쿄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 한국대표팀 공식연습에서 추신수가 타석에 들어서 타격자세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WBC 지상파로 본다

방송 3사-IB 스포츠, 생중계 극적 합의

야구팬들이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대표팀 경기를 지상파 방송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게 됐다.

WBC 국내 독점 중계권을 보유한 IB 스포츠는 5일 오후 "KBS와 지상파 중계 방송 계약이 전격 체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IB 스포츠로부터 중계권을 사들인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3월6일 오후 6시30분부터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WBC 한국-대만전을 시작으로

이번 대회 한국 대표팀의 전 경기를 생방송으로 중계한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달 초부터 KBS를 단일창구로 IB 스포츠와 재판매 협상을 벌여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IB 스포츠와

KBS간 협상이 한발도 나아가지 못해 생중계 시청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양측 모두 야구팬들의 관심과 열정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태도를 바꿔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IB 스포츠는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자 지상파 방송과 계약한 금액을 서로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보도자료를 통해 '크나큰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혀 결국 KBS가 바란 금액에 도장을 찍었음을 시사했다.

TV 외에도 야구팬들은 인터넷 동영상 포털사이트인 엠군(www.mgoon.com)과 위성 DMB인 TU미디어, 모바일 사업자인 SKT 네이트를 통해서도 WBC를 볼 수 있다.

/연합뉴스

함평에 야구타운 조성

용성리 전남야구장 인근에 야구장 1면 추가 건설

함평군이 야구전문타운을 조성해 스포츠 메카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5일 함평군에 따르면 대동면 용성리에 있는 전남야구장 인근에 정규 야구장 1면을 추가 건설하고 기타 부대시설 등을 갖춘 '전남 야구전문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총 20억원이 투입돼 2010년 말까지 마무리 될 야구전문타운은 '스포츠 메카 함평'의 입지를 다지는 동계전지훈련장으로 조성된다.

군은 이곳에 함평군 출신 한국야구 공인 1호 홈런타자로 조선야구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야구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서상국 선생의 흉상 건립을 통해 테마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의 전남야구장은 지난 2000년 3월 2

만3천㎡ 규모로 건립됐으며 함평군은 2002년 2월 9천800㎡ 규모의 실내 야구연습장과 선수 합숙소를 조성하는 등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다.

군은 특히 야구전문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서상국배 초·중·고 전국 야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한편 다채로운 스포츠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겨울에도 안산상고 야구부와 평택시청 레슬링부 등 1천600여명의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하는 등 함평이 동계 전지훈련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시설 확충과 특화된 스포츠 관광 마케팅으로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4079@



5일 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열린 춘계 고교야구 대회 광주일고와 동성고와의 경기에서 4회 초 광주일고의 강백산이(사진 왼쪽) 류창식의 2루수 앞 땅볼 때 홈으로 쇄도해 세이브 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일고, 동성고에 11-2 콜드승

광주 춘계고교야구대회

광주일고가 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춘계고교야구대회 동성고와의 경기에서 중심타선의 활약을 앞세워 11-2로 8회 콜드승을 거두었다.

광주일고는 1회 2사 만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지만, 3회 무사 1·2루에서 터진 3번 강민국의 2타점 3루타로 기선을 잡았다.

이어진 4회 1사 만루에서는 4번 강백산의 싸늘이 3루타가 나오는 등 일고는 폭발적인 타격으로 동성고를 11-2로 제압했다.

광주일고는 6일 오후 2시 대동면배 고교야구대회 진출권을 놓고 진흥고와 격돌한다.

한편 전국소년체전 2차 예선 중등부 경기에서는 동성중이 6-1로 충장중을 꺾으며 2연승을 달렸고, 진흥중은 무등중을 9-5로 누르고 1승1패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

남자탁구 서현덕 '고교생 돌풍'

세계선수권대표선발전 실업랭킹 1위 오상은 제압

남자 탁구 기대주 서현덕(부천 중원고)이 2009 세계선수권대회(4.28~5.5·일본 요코하마) 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고교생 돌풍'으로 태극마크 기대를 부풀렸다.

서현덕은 5일 태릉선수촌 내 개신관 지하 1층에서 열린 대표 최종 선발전이 열린 경기에서 국내 실업랭킹 1위인 '만항' 오상은(KT&G)을 4-2(11-9 11-6 5-11 11-6 6-11 12-10)로 꺾는 '녹색 테이بل 반란'을 일으키며 중강성적 6승2패를 기록했다.

원소 셰이크랜드인 서현덕은 남은 김정훈(KT&G), 이진권(삼성생명)과 경기에서 1승만 챙기면 4위까지 주어지는 요코하마행 직행 티켓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4위 안에 들지 않더라도 대한탁구협회 추천 1명 후보를 기대할 만하다.

지난해 종합선수권대회 3관왕(단식·복식·단체)에 올랐던 서현덕은 2008 아시아 주니어선수권대회 단식 3위에 오르며 등 국·내외 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차세대 에이스감으로 손꼽히고 있다. 서현덕의 돌풍 속에 '수비 달인' 주세

혁(삼성생명)과 김정훈을 나란히 7승1패로 일찌감치 대표로 확정됐다.

주세혁은 이날 이정우(농심삼다수)와 김정훈을 각각 폴세트 점진 끝에 4-3으로 물리쳤다.

전날 주세혁과 이정우를 물리치는 이번 연승을 앞둔 이진권(삼성생명)도 6승2패로 남은 서현덕, 조지훈(농심삼다수)과 경기 결과에 따라 태극마크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상은은 5승2패, 이정우는 4승4패에 그쳐 대표 선발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여자부에서는 혼전 속에 이은희(단양군청)와 당에서, 석하정(이상 대한항공), 박미영(삼성생명)이 선두 그룹을 형성하며 태극마크에 승려 다가갔다. 이은희는 김정현(대한항공)에게 3-4로 덜미를 잡혔을 뿐 7승1패로 가장 앞서 나갔고 당에서와 박미영은 각각 6승2패, 석하정은 7승2패를 기록 중이다.

반면 전날 최강기 당에서와 이은희를 누르는 이번을 연승했던 김정현은 박미영에게 1-4로 지면서 5승4패로 밀렸다. /연합뉴스

유도 최민호 올림픽 후 첫 60kg급 출전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남자 60kg급 금메달리스트 최민호(29·한국마사회)가 올해 첫 대회에 출전한다.

이경근 한국마사회 감독은 5일 "최민호가 23일부터 열리는 국가대표 2차 선발전 60kg

급에 출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제35회 회장기대회를 겸해 대전 도솔다목적체육관에서 26일까지 열리는 이 대회는 올해 세계선수권대회(8월·네덜란드드레프트) 국가대표를 뽑는 2차 선발전이다. /연합뉴스